Education First

www.ef.co.kr/epi

EF EPI

EF 영어능력지수

소개의 글

영어 학습자 인구

영어를 배우는 지구촌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쓰지 않는 상당수의 국가에서도 유치원 혹은 초등 교과과정에 영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등 교과과정에서는 영어가 필수 과목으로 도입되어 일부에서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기타 과목들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기도하다. 대학 교육에서도 입학 또는 졸업의 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영어 능력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영국의 명문 대학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비영어권에 있는 전세계의 많은 대학들이 영어로만 진행하는 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현재 사립 영어 학습 시장의 규모는 약 500억 달러(한화 약 57조원)로 추정되며, 향후 10년 내에는 현재보다 2배 증가한 20억에 달하는 인구가 영어를 배우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영어 교육 투자에 대한 성과 측정의 어려움

이처럼 공교육과 사교육 부분에서 영어 교육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투자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투자대비 성취도 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추가적인 노력을 측정하기 위해 객관적인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정보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사실 영어 교육에 종사하는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차 영어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나 학습자의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는 있지만, 영어 학습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지향점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러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해 나아가야 할지 기준을 정하는 논의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성인 대상 영어능력 평가지수의 표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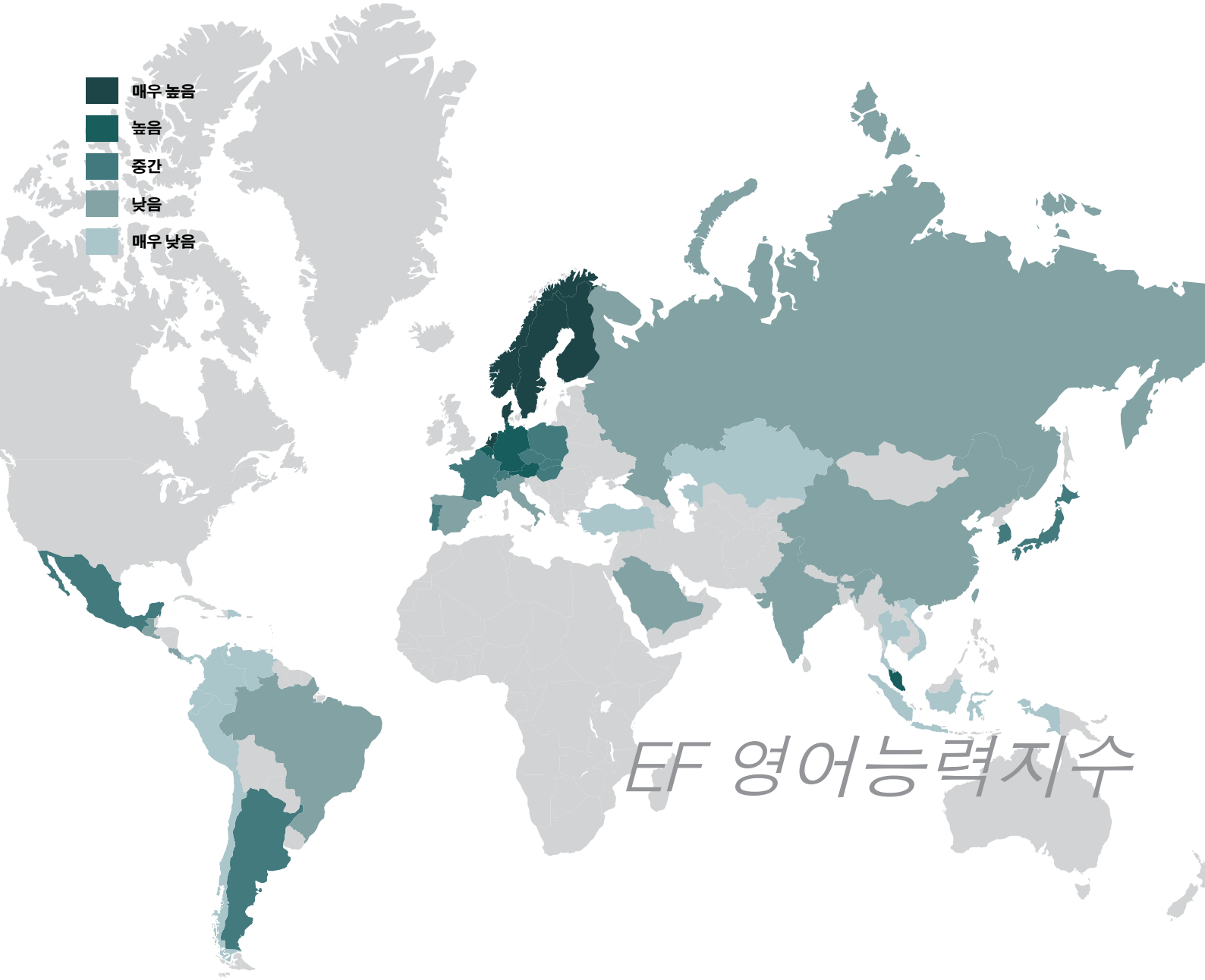
이러한 배경에서 성인의 영어능력을 국가별로 비교하고 그 신장도를 분석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표준 영어능력 지수로 EF EPI (English Proficiency Index)가 고안되었다. EF EPI는 EF Education First(이하 EF)가 세계 최초로 일반인의 영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약 200만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무료 온라인 영어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영어능력 지수를 공개한 것이다. EF가 온라인상에서 제공한 영어 테스트는 기초부터 고급까지 다양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대상자들에게 응시 제약을 두지 않아 비교적 포괄적인 대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일반인들의 영어능력을 특정한 목적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비교적 실제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F EPI가 비록 각 국가별로 설정한 다양한 교육 및 경제 목표를 수용하며 부합할 수 있는 지수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표본의 데이타를 표준화하여 국가별로 상대 평가가 가능하게끔 설계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EF EPI는 각 나라의 영어교육 정책, 그리고 해당 국민의 성취도를 글로벌한 관점에서 비교, 평가하고자하는 관련 정부기관 및 정책 관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향후 10년 내 약 20억에 달하는 인구가 영어를 배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F EPI 보고서는 전세계 약 200만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어 시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영어 말하기 능력이 더 이상 경쟁력이 아닌 기본 자질로 요구되는 현실에서 EF EPI (영어능력지수)의 바탕이 되는 평가방식은 기존의 영어능력 평가방식과 크게 세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의사소통 능력에 초점을 둔다는 점, 둘째, 표준화된 고유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점, 셋째, 자율적인 동기를 가진 대상자가 온라인을 통해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여 평가 대상에 제약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44개국 200만명 이상의 표본 데이타를 표준화하여 국가별로 상대 평가가 가능하게끔 설계한 것으로 관련 정부기관, 교육 정책 관리자,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나폴리온 카트소스(Dr. Napoleon Katsos) 선임 연구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영어 언어학 연구소



순위	국가	EF EPI 지수	능력도
1	노르웨이	69.09	매우 높음
2	네델란드	67.93	매우 높음
3	덴마크	66.58	매우 높음
4	스웨덴	66.26	매우 높음
5	핀란드	61.25	매우 높음
6	오스트리아	58.58	높음
7	벨기에	57.23	높음
8	독일	56.64	높음
9	말레이시아	55.54	높음
10	폴란드	54.62	중간
11	스위스	54.60	중간
12	홍콩	54.44	중간
13	한국	54.19	중간
14	일본	54.17	중간
15	노르웨이	53.62	중간
16	아르헨티나	53.49	중간
17	프랑스	53.16	중간
18	멕시코	51.48	중간
19	체코	51.31	중간
20	헝가리	50.80	중간
21	슬로바키아	50.64	중간
22	코스타리카	49.15	낮음

순위	국가	EF EPI 지수	능력도
23	이태리	49.05	낮음
24	스페인	49.01	낮음
25	대만	48.93	낮음
26	사우디아라비아	48.05	낮음
27	과테말라	47.80	낮음
28	엘살바도르	47.65	낮음
29	중국	47.62	낮음
30	인도	47.35	낮음
31	브라질	47.27	낮음
32	러시아	45.79	낮음
33	도미니카공화국	44.91	매우 낮음
34	인도네시아	44.78	매우 낮음
35	페루	44.71	매우 낮음
36	칠레	44.63	매우 낮음
37	에콰도르	44.54	매우 낮음
38	베네수엘라	44.43	매우 낮음
39	베트남	44.32	매우 낮음
40	파나마	43.62	매우 낮음
41	콜럼비아	42.77	매우 낮음
42	태국	39.41	매우 낮음
43	터키	37.66	매우 낮음
44	카자흐스탄	31.74	매우 낮음

영어 교육의 현주소

다국적 기업 직장인 중 절반이 직장에서 매일 영어를 사용한다.

영어의 새로운 역할

과거 외국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특정 엘리트 계층에게만 요구되는 자질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신분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영국 제국주의 세력의 확장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의 확대로 영어는 예전 국제어로서의 불어의 역할을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빠르게 진행된 세계화 및 도시화 그리고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달을 통해 영어의 역할은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게 되었다. 오늘날, 영어 구사 능력은 더 이상 일부 계층만이 갖추어야하는 특수한 자질이 아니며, 마치 지난 2세기 동안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소수 엘리트 계층에서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진화된 것처럼, 영어 구사 능력 또한 모든 노동 인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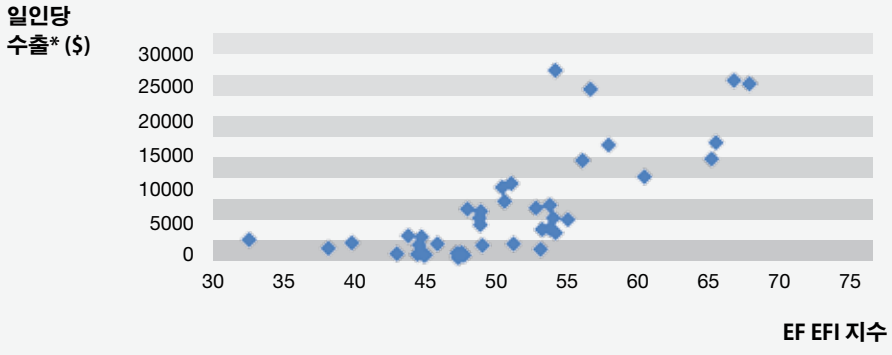
국제 경제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공용어 - 영어

아웃소싱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일정 이상의 영어능력을 갖춘 서비스 인력 배출이 성장의 핵심이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10,000명을 대상으로 2007년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9% 가 직장에서 매일 영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겨우 9% 만이 영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제 영어는 비단 영어권 비즈니스 상대와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공용어가 없는 모든 비즈니스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국제어로 자리잡았다. 심지어 여러 개의 방언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도 영어가 공통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러한 영어의 광범위한 사용이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영어 구사 능력이 국제 경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는 점에 많은 국가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영어교육 전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외국 자본 유치에 필수적인 영어

미국과 영국의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고려할 때 비용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해당 지역 노동 인구의 교육 수준 및 영어 구사 능력이다. 서비스를 기반으로 외국 자본를 통해 고도 성장을 목표로 하는 개발도상국가들은 이러한 기회요인을 인식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고학력 서비스 인력들을 대량으로 배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발달은 중산층의 증가, 구매력의 강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영어 과목을 초등교육 혹은 심지어 유치원 교육과정에까지 통합시키고 있는 점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상당수의 국가들이 영어를 국가고시 과목에 포함시키고 있기도 하다.



수출과 영어 구사 능력 간의 비례관계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와 같이 수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비교적 작은 국가들은 영어 구사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 활동 참여가 낮은 나라들은 영어에 대한 필요성과 학습 동기가 낮아 영어 구사 능력이 저조한 편이다.

*CIA World Factbook 2010.

더 자세한 도표는 www.ef.co.kr/epi/ef-epi-ranking/exports-per-capita/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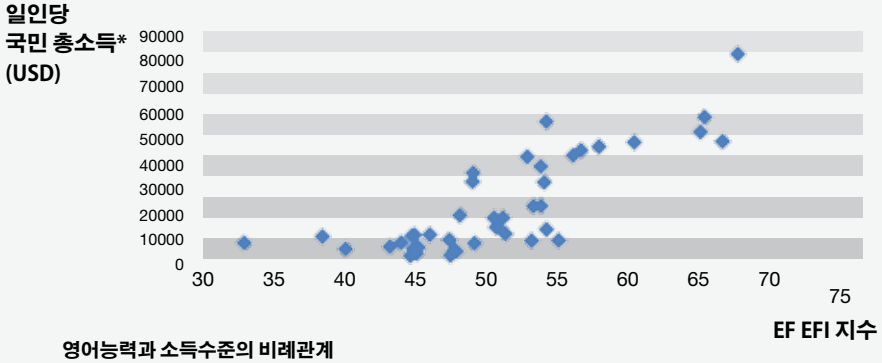
과학 기술 혁신을 위한 공용어로서의 영어

국제 연구 협력이나 기술 공유에 있어 과학자나 엔지니어들간의 의사 소통은 필수이다. 매년 가장 많은 수의 과학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영국과 중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평균 영어 능력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국제 협력 프로젝트의 참여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2009년 출간된 과학 논문 가운데 국제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된 논문은 영국이 45%, 독일이 48%를 발표한 반면, 중국에서는 겨우 15%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전문가들은 영어 구사 능력이 비교적 낮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논문을 접할 기회가 적으며, 설사 기회가 있더라도 이해도가 낮아 지식의 공유가 힘들고 말한다. 이는 또한 국제 기술 혁신에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는 원인이기도 하다.

소득수준과 영어능력의 상관관계

과거 영어능력은 외교나 통역 업무와 같이 일부 직종에 국한되어 필수로 여겼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정의 영어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평균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갖춘 취업 지원자들은 단연 돋보일 뿐 아니라 비슷한 자격을 갖췄지만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지원자들 보다 평균 30-50%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고 한다. 보편적으로 한 나라의 평균 영어 실력은 국민 총소득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능력과 소득수준간에는 선순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결과적으로 영어교육에 대한 더 많은 투자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 나라의 평균 영어 실력은 국민 총소득과 상관관계가 있다



영어능력과 소득수준의 비례관계

한 국가의 소득수준과 그 국가의 성인 영어능력 수준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성립된다. 영어능력의 향상이 소득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정부나 개인이 영어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증가하는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중간 영어능력 (EF EPI 점수 50-55)군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의 영어능력과 소득수준은 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이는 영어능력이 요구되지 않는 산업들이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월드 뱅크, 2008

더 자세한 도표는 www.ef.co.kr/epi/ef-epi-ranking/gross-national-income/ 참조

오늘날의 영어학습

세계 영어 사용 인구의 4분의 3 이상에게 영어는 모국어가 아니다.

비영어권 사람들의 공용어로서의 영어

지난 20년간 영어 교수이론은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의 배경과 성향이 바뀜에 따라 급격히 진화해왔다. 언어학자들과 영어교육 전문가들은 영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점점 교과서적인 이론의 전달이나 원어민 수준의 발음 구사력을 떠나 성공적인 의사소통 능력으로 보고 있다. 세계 영어 사용 인구의 4분의 3 이상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영어는 영국과 미국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초월하여 통용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오늘날 영어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대부분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실 정확한 의사 전달만 이루어진다면 표준 문법이나 발음의 차이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때로는 비영어권 사람들이 원어민과 영어로 대화하는 것보다 다른 비영어권 사람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하는 사례들도 있다. 원어민들은 문법 및 발음상의 오류와 차이에 대해 덜 관대한 경향이 있어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 습관상 원어민들은 상대방의 장애를 인식하지 않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상황에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도 많다.

완벽한 영어 몰입교육 상황에서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동이 원어민 동급생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4-7년이 소요된다.

의사소통 능력에 촛점을 맞춘 영어교육

따라서 모든 형태의 영어교육이 성공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며, 학생의 성취도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전 세계 모든 교육 시스템과 영어능력 평가기관들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 되겠지만, 이와 같이 의사소통 중심의 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주입식으로 교과서적인 문법적 이해를 위주로 학습한 학생들보다 장래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더 큰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들이 비영어권 사람들과 보다 매끄러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영어를 의사소통의 매개로 이해하는 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연령별 영어 습득 능력에 대한 신화와 진실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연령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외국어 습득에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다시 말해, 일정 연령 이후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대다수의 성인들이 보다 효과적인 언어학습 방법을 찾아 배우고 있기는 하나, 언어 학습 능력은 유년기의 정점이 지나고 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천천히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또한 조기에 언어 학습을 시작할수록 언어 교육을 받는 전체 기간이 늘어나 보다 장기적인 학습 환경에 노출된다. 더불어, 8세-12세 사이에 학습을 시작한 어린이들이 대체로 영어를 빨리 배우며, 수년 후에도 이미 습득된 기본적인 자질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된 바있다. 소리와 패턴의 인식, 언어적 호기심 및 응용력, 그리고 메타 언어 인식 등은 모두 외국어에 대한 조기 노출의 장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EF EPI에서 사용된 시험들은 이러한 효과들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지는 않았다.

학계에서는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나이에 상관없이 비영어권 학습자가 전적으로 영어만 사용하는 학습 환경에 놓여질 경우 원어민 동급생들과 같은 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추기위해서는 적어도 4~7년이 요구되며, 의사 표현을 유창하게 하는 데에만 최소 3~5년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수업의 일부만을 영어로 진행하는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요구된다. 이처럼 언어를 완전히 마스터 한다는 것이 보다 장기적인 노력을 요하는 것이라는 것을 학생들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면, 이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와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교육 및 사교육

대부분의 영어 시험들이 학습자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있다.

장기적 관찰을 요하는 영어교육 개혁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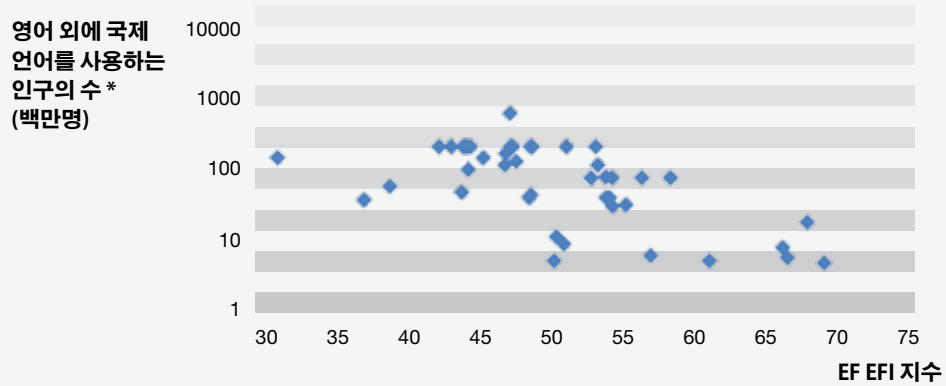
수학이나 과학과 마찬가지로 영어는 점점 전세계 공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편입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영어교육 정책에 불어닥친 수많은 변화로 때로는 한 국가에서 8살 초등학생과 15살 중학생이 동시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사례가 있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이미 교육과정을 마친 성인들에게는 다소 느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EF가 주관한 시험에 응시한 성인들은 주로 1980년에서 2001년 사이에 단행된 교육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 현재 교육 개혁을 실행해 나아가는 정부가 전체 성인 인구의 영어능력이 가시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향후 수십년 간의 결과치를 지속적으로 견지할 필요가 있다.

영어와 모국어 교육

모든 학생들에게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국어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나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는 것이 제국주의적이라고 여기는 일부 계층의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견해를 뒷받치는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핀란드나 말레이시아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다언어 국가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수준의 영어능력을 성취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이 영어를 국제 공용어로 확산시키려하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근거 없는 주장이다. 지난 10년 동안, 반미주의에 대한 인식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크게 확산되었다. 반면,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공용의 언어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미 공용어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영어가 자연스럽게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훨씬 설득력이 있다.

영어 사교육 시장의 성장

영어 사교육 산업은 모든 연령층과 다양한 예산에 맞추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놀라울 정도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이미 상당하다. 공교육 언어 교육 정책이 불만족스러운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통해 자녀들에게 조기 영어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졸업과 관련된 영어능력 인증시험에서 보다 나은 점수를 얻고자 하는 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는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영어의 중요성이 이만큼 부각되지 않았던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성인들은 진급이나 이직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향상시키기 위해 영어 실력을 필수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퇴근 후 야간 과정 혹은 온라인 과정을 통해 영어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렇게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이미 수만 개의 웹사이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 사내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 또한 직원들의 영어교육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그 시장의 규모는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어 외 국제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취약한 영어능력

세계 인구 중 많은 수의 인구가 사용하는 공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영어 구사 능력이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이나 외교적으로 그 사용 빈도가 높은 스페인어와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나라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Lewis, M. Paul, 2009. Ethnologue: Languages of the World, Sixteenth edition.

더 자세한 도표는 www.ef.co.kr/epi/ef-epi-ranking/native-speakers/ 참조.

영어교육 산업의 표준화

최근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교사와의 교실 수업에서부터, 하루 24시간 제약없이 본인의 목표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영어를 학습할 수 있다. 과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획일적인 학습 목표를 기반으로 성립된 교육과정 및 교수법 아래 수업을 받고, 그 성과 또한 획일적으로 측정했던 방식에서 점차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교육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다각화 됨에 따라 학습자의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오히려 학습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로그램의 질, 학습 능력, 학습 목표가 표준화되어있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그러한 목표를 설정해 본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거나 학생 개인의 니즈에 맞지 않는 학습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우선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옵션들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실망하게 된다. 실제로 개인의 능력과 필요에 맞춰진 균형있는 영어 교육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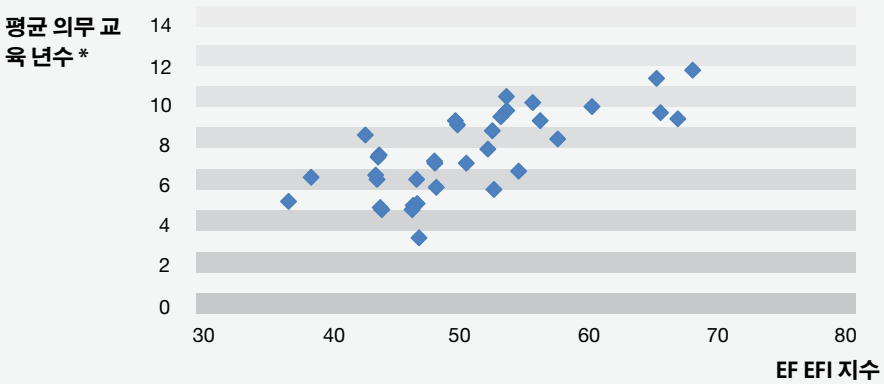
낡은 기준에 맞춰진 영어능력 평가

유럽 공동 참조 기준인 CEFR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은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정의하고 표준화하려는 광범위한 시도이다. 10여 년전 개발된 이 개념은 공교육 및 사교육 부문의 교육자들이 교육과정 표준화의 잣대로서 널리 채택하여 왔다. 하지만, CEFR은 언어 교육의 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단계에 불과하다. 이와 더불어, 각 레벨에 맞는 보다 세분화되고 심도 있는 정의가 마련되어야 하며 오늘 날의 보편적인 영어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 도구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반해, 오늘날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영어능력 평가시험들은 과거의 기준에 맞추어 영어능력을 판단하고 있어, 오늘날 국제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영어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어능력 상대 평가를 위한 글로벌 표준화

EF EPI는 각 국가간의 영어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착안되었다. EF EPI는 44개국에서 2 백만 명 이상의 응시자들이 치른 네 가지 시험 자료에 근거하여 전세계 성인 영어능력에 대한 차별화된 자료를 제공한다.

미화 약 500억 달러 규모의 사교육 시장은 과도하게 세분화 되어 있다.



평균 의무 교육 년수와 영어능력의 상관 관계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교육 시스템들이 존재하지만, 평균 의무 교육 년수와 영어 능력 간에는 특별히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 나라의 평균 영어 능력을 향상 시키고 신장된 영어능력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증가 시키려면 의무 교육 기간을 늘리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 World Bank, Robert Barro & Jong-Wha Lee, 2000.

더 자세한 도표는 www.ef.co.kr/epi/ef-epi-ranking/number-of-years-o f-schooling/ 참조.

유럽의 EF EPI 순위

순위	국가	지수	능력도
1	노르웨이	69.09	매우 높음
2	네델란드	67.93	매우 높음
3	덴마크	66.58	매우 높음
4	스웨덴	66.26	매우 높음
5	핀란드	61.25	매우 높음
6	오스트리아	58.58	높음
7	벨기에	57.23	높음
8	독일	56.64	높음
10	폴란드	54.62	중간
11	스위스	54.60	중간
15	노르웨이	53.62	중간
17	프랑스	53.16	중간
19	체코	51.31	중간
20	헝가리	50.80	중간
21	슬로바키아	50.64	중간
23	이태리	49.05	낮음
24	스페인	49.01	낮음
32	러시아	45.79	낮음
43	터키	37.66	매우 낮음

44개국의 영어능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EPI 지수는 전 세계의 영어 수준이 각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그 배경도 다양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각 나라의 지수를 지리적 근접성, 교역 관계, 그리고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의 우선 순위 등을 반영하여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의 영어능력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는 이유는 단연 다국어 사용 환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유럽 지역의 높은 영어능력

유럽 국가 구성원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영어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럽 연합은 모든 구성원들이 모국어 외 하나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다국어 문화정책으로 표방되는 이러한 기조는 공교육, 기업 문화 및 유럽 연합 정책의 변화를 몰고 오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 학생들 중 90% 이상은 의무 교육 기간 동안 영어를 필수로 공부하고 있다. 더욱이, 유럽에 사업장을 둔 많은 다국적 기업 및 제조 공장에서 영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다.

영어교육 도입 시기 보다 영어 접촉 기회 확대에 비중을 둔 정책 도입의 필요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영어를 조기교육에 도입하고는 있지만, 흔히 그 수업량이 미미하여 학생들의 가시적인 성취도 신장을 도출해내는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영어교육을 보다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것이 이롭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지만, 공교육에만 의존하여 한계적으로 영어 환경에 노출하는 것이 학생들의 영어능력 신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는 1984년과 2000년 사이 10~12세에 해당하는 연령에 영어교육을 시작하였던 반면, 스페인과 이태리에서는 동시기 8~11세에 영어교육을 시작하였다. 스페인과 이태리에서 더 어린 나이에 영어교육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국가는 유럽연합 가운데 가장 낮은 영어능력 지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기 영어교육의 시작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궁극적인 영어능력의 향상을 기대 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처럼 영어능력의 습득에는 교수자의 질, 교과 과정과 교습법,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 및 투자 시간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영어 및 모국어 병용 교육

핀란드, 벨기에, 그리고 스위스 등에서는 학교 수업에서 모국어와 영어 수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병용 교육방식이 모국어 능력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영어를 학습함으로인해 모국어나 공용어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는 사실이다. 보편적으로 영어가 국제어로서 역할을 담당할 때에는 공용어나, 공식 제2외국어 및 이민자들의 모국어가 갖는 역할과 그 범위를 달리한다. 이러한 논쟁은 주로 모국어보다 영어교육에 중요도를 부과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일례로 독일어와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스위스에서 각 지방 표준어외 교육과정에 영어를 제 2 공용어에 우선하여 도입되자 이에 대한 우려가 공론화된 바 있다. 허나, 다수 국가의 사례에서처럼 영어와 모국어 병용 교육 방식은 모국어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충분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교육 시스템에서 필수과정으로서의 영어와 그 효율성

학생들에게 영어를 제1외국어로 필수화 하는 것은 우수한 영어능력과 강한 상관 관계가 있다. 44개 국가 중,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와 독일만이 1982년과 2000년 사이에 영어를 제 1 외국어로 지정하여 필수과정으로 이수토록했다. 이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외국어 과목에 대하여 제1외국어를 직접 선택하거나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영어를 필수 제 1 외국어로 선택한 국가들 중 독일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영어능력을 갖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1989 년까지 서독에서만 영어를 제 1 외국어 필수과목으로 채택하였다. EF EPI를 위한 시험에 응시한 일부 학생들은 1989년 이전 동독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둘째, 독일은 영어교육 기간이 비교적 짧다 (아주 높은 능력을 보이는 국가들은 7-10년인데 비해, 독일은 5-6년 밖에 되지 않는다). 비록 영어교육 기간과 영어 능력 간에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논리적인 상관관계는 있다. 즉, 영어를 제1외국어 필수과목으로 채택하여 교육시키는 경우, 총 교육기간 및 접촉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의 영어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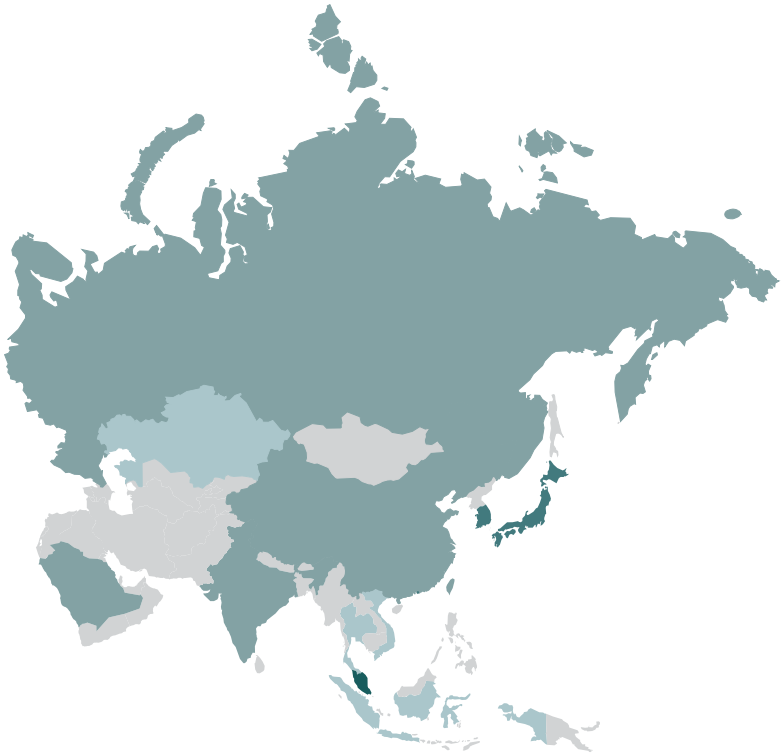
낮은 지수에 대한 해설:

교육 개혁의 부재 및 빈곤한 교육 투자

유럽의 전반적인 영어 수준에 비해 스페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능력 지수를 보이는 것은 지난 30년간 스페인에서 일어난 광범위한 교육 개혁의 역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스페인의 일인당 교육 지출비는 세계 45위 수준으로, 다른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훨씬 뒤쳐져 있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교육 개혁을 거치면서 현재 스페인의 어린이들은 이웃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경우, 이번 시험에 응시한 대상자들이 학생이었던 당시 공교육 기관의 기반 시설은 매우 미흡했다. 자료에 의하면 1980 년대 말까지 30% 의 학생들이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수만 개의 학교들이 낙후된 기반 시설 때문에 폐교하였고, 그 결과 1990년대 중반에는 모든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학생 두 명 중 한 명은 2부제 또는 3부제 수업을 실행하는 학교에 다녔다. 2005 년 현재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은 GNP의 3.6% 에 불과했는데, 이것은 유럽 연합에 속한 어떤 국가보다도 두드러지게 낮은 수준이다.

아시아의 EF EPI 순위



순위	국가	지수	능력도
9	말레이시아	55.54	높음
12	홍콩	54.44	중간
13	한국	54.19	중간
14	일본	54.17	중간
25	대만	48.93	낮음
26	사우디아라비아	48.05	낮음
29	중국	47.62	낮음
30	인도	47.35	낮음
32	러시아	45.79	낮음
34	인도네시아	44.78	매우 낮음
39	베트남	44.32	매우 낮음
42	태국	39.41	매우 낮음
44	카자흐스탄	31.74	매우 낮음

한 나라에 다국어가 공존할 때 영어는 교량 언어로서의 역할을 한다

아시아 지역의 방대한 교육 투자와 그 잠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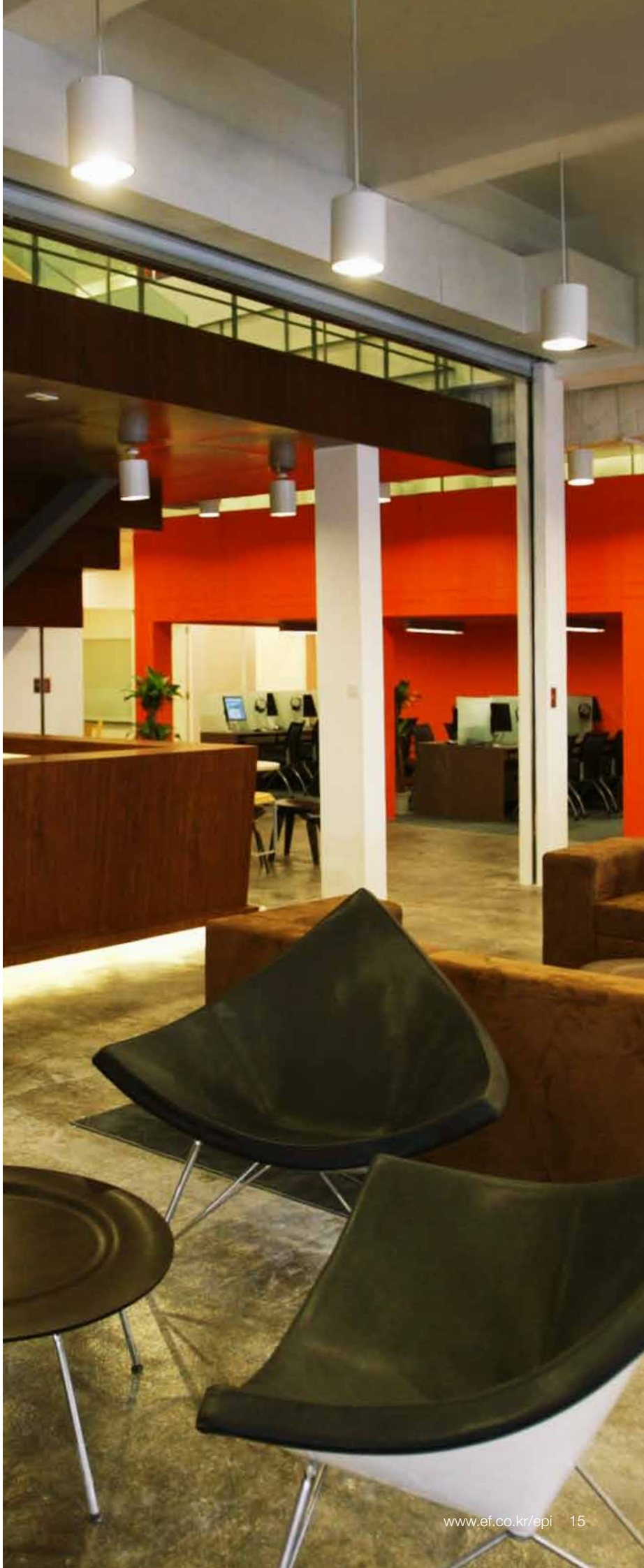
아시아 지역의 경우 흔히 알려진 사실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과 인도가 바로 그 예이다.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점과 영어를 공용어의 하나로 사용하는 국가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평균 영어 실력이 현재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의 평균 영어 실력보다 높지 않다. 대만과 홍콩 역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점수가 낮다. 두 국가 모두 경제 발전과 교육 투자만으로는 높은 수준의 영어능력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한국 및 홍콩은 교육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세 국가의 교육 정책 및 영어와 관계한 역사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홍콩은 영국에 귀속되었던 역사적 배경 및 영어를 정부 및 공적 영역의 공식 언어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영어 능력에 있어서 이웃 국가들을 크게 앞서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조기 영어 교육을 도입하고 있는 공교육 시스템과 방대한 사교육 시장 규모에서 보여지듯 영어 학습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또한 지난 한세기 정치적, 사회적으로 미국 등 영어권 국가의 간접적인 영향에 노출되어 왔지만, 영국 통치권 아래 있던 홍콩의 경우처럼 영국식 교육시스템이 도입되는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다국어 환경에서 교량어로서의 영어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순위가 높으며 유럽과 함께 유일하게 높은 영어능력을 보이는 말레이시아는 영어가 한 국가 내의 서로 다른 언어 집단들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는 좋은 예이다. 말레이시아에는 말레이족 외에 각자 자신의 전통과 언어를 가진 대규모의 중국어 및 인도어 사용 인구가 있다. 영어는 오랫동안 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교육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영국의 'O' 레벨 체제 아래 초등학교 졸업 시점과 고등학교 졸업 시점에 거쳐 두 번의 필수 영어 능력 시험을 치른다. 말레이시아에서 영어는 국제적 의사소통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세 언어 집단 사이의 공용어 기능을 하고 있다.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의 영어 교육

중국은 여러모로 언어 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국민들에게 북경어를 국가 공용어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현재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 인구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 많다. EF EPI 지수에 의하면 중국은 여전히 영어에 능통한 수준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공교육을 통한 어린이 교육과 공적 부문에 있는 성인들을 위한 교육 모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08 베이징 올림픽과 2010 상하이 엑스포를 기점으로 다양한 공공 부문 종사자들의 영어 교육을 위한 상세한 목표를 설정하였고, 또한 음식점 메뉴나 화장실과 같은 공공 장소의 영어 표기를 교정하는 등 표준 영어 사용을 위한 노력을 펼쳤다. 중국이 지역 경제에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주도해 나아가는 한, 중국의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향상은 모든 이웃 국가들에게 자극제로 작용할 것이다.



남미의 EF EPI 순위

순위	국가	지수	능력도
16	아르헨티나	53.49	중간
18	멕시코	51.48	중간
22	코스타리카	49.15	낮음
27	과테말라	47.80	낮음
28	엘살바도르	47.65	낮음
31	브라질	47.27	낮음
33	도미니카공화국	44.91	매우 낮음
35	페루	44.71	매우 낮음
36	칠레	44.63	매우 낮음
37	에콰도르	44.54	매우 낮음
38	베네수엘라	44.43	매우 낮음
40	파나마	43.62	매우 낮음
41	콜럼비아	42.77	매우 낮음

남미는 평균 이하의 교육 수준 및 저조한 출석률 때문에 지역별 순위에서 하위권에 놓여있다

전 국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탄탄한 교육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남미의 공용어 - 스페인어

남미는 모든 지역 중에서 영어 실력이 가장 저조한 지역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능력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남미 지역에서 스페인어가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국제 무역, 외교 및 여행이 가능하여 학습자의 영어 학습 동기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취약한 초등 교육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사실 남미의 낮은 영어능력은 공교육의 취약성과 남미 전역에서 나타나는 낮은 진학률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볼 수 있다. 1999년 한 전문 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남미의 공립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 절반이 초등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채 중퇴하며, 입학 대상 연령의 3분의 1만이 고등학교에 진학한다고 발표했다. 단적인 예로 95%의 초등 교과과정 이수율을 가진 말레이시아와 비교해보면 그 현격한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또한 성공적으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조차 비교적 관대한 이수 조건으로 졸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경쟁할 만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90년대의 여러 보고서와 교육 평가에서도 남미의 교육 수준이 세계 다른 지역에 있는 비슷한 수준의 개발도상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높은 능력에 대한 해설:

고등교육으로의 진학률과 영어능력의 상관관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공립학교 진학률에 있어 1984년과 2001년 사이에 가장 신장도를 보였다. 브라질은 1984년에 그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62%의 진학률을 보였는데 2001년에는 남미에서 가장 높은 90%의 진학률을 보여 이 기간 동안 공립학교 진학률의 급격한 상승을 이루었다. 그러나 EF EPI 시험 응시자들이 정규 교육을 받던 시기에 브라질 공립학교 진학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이번 결과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국민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은 영어를 비롯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평가 요소이다.

영어권 국가들과의 경제 및 사회적 유대

남미의 또 다른 두 국가인 과테말라와 멕시코는 일정 수준의 영어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는 이지역 주민의 잦은 미국 이민과 연관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1990년에서 1999년 사이에 미국에 온 합법적 이민자들 중 30%가 멕시코 출신으로 단일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 중 가장 높다. 일부 이민자들은 미국에 체류하며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 태생의 자녀와 모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이민자들은 모국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지역 사회에 영어를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두 경우 모두, 비록 한 국가의 평균 성인의 영어 실력이 급격히 향상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영어 사용국과의 밀접한 관계가 그 나라의 평균 영어 실력 향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

오늘날 영어능력의 필요성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 영어를 할 수 있는 소수가 누리던 이점은 이미 현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대신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감에 따라 지난 수십년간 많은 국가에서 폭발적인 영어 학습 붐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의 영어능력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거나 국가 간의 영어능력을 비교한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EF EPI는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영어 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가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하는 바이다:

- 모든 학령인구에게 보다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한 언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공교육 시스템에서 12살 이상의 모든 학생들에게 영어를 필수 언어로 교육해야 하며, 이를 고등 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 다국어 문화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모국어 외 한 가지 이상의 언어를 추가적으로 구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문화적 환경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이러한 다국어 문화를 일반화하여 정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북유럽 국가를 비롯한 영어능력이 높은 국가들의 대부분이 다국어 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바 있어 그 가능성을 염두해둬야 한다고 본다.
- 현재 대부분의 성인들이 공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비단 학령인구 뿐만아니라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 성인 계층에게도 장기적 개념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영어가 필수가 되어버린 오늘 날,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보다 쉽게 영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영어를 구사하기까지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한 직장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성인 교육 장학금 모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의 수립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ESL 환경에서 공부해온 학습자들에게는 듣기와 말하기 연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 무조건적인 암기나 문법적 이해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닌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고 보상해 줄 수 있는 영어능력 평가 방법들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의 평가만이 공교육 및 사교육 부문에서 보다 양질의 영어교육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될 뿐아니라, 학습자들의 궁극적인 영어 학습 목표를 성취해 나아가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영어능력 시험

국제적으로 실시되는영어능력 시험은 서로 다른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을 비교하고 측정할 수 있게끔 하며 평가 기준과 학습의 목표에 대한 논의를 촉진 시키는 중요한 도구이다. 전 세계 아동들의 과학, 수학 및 읽기 실력을 비교하는 TIMSS나 PISA 처럼 EF EPI도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규모로 성인들의 영어능력을 평가하여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F는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전세계 수억 명의 학습자들의 학습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동일한 관심사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끌어나아갈 이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법의 이해 등 이론적인 측면보다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에 중점을 둔 보다 견고하고 표준화된 영어능력 평가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EF EPI 지수에 대하여

EF EPI는 최초로 성인 영어능력을 국가별로 비교하고 그 신장도를 분석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영어 능력 지수에 관한 보고서이다.

EF EPI에 사용된 시험

EF 영어능력지수는 매년 수십만 명의 성인이 응시할 수 있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영어 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평균 영어 실력 수준을 평가한다. 그 네 가지 시험 중 두 가지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무료로 응시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다른 두 가지 시험은 EF의 어학연수기관에서 학생들이 영어 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레벨 측정의 목적으로 임하는 온라인 테스트이다. 이 네 가지 시험 모두는 문법, 어휘, 읽기 및 듣기 부문을 포함한다. 첫번째 시험은 30개의 문항이 있는 적응형 시험으로써, 시험 문항은 바로 전 문항에 대한 응답의 결과에 따라 그 난이도가 조정된다. 나머지 세 가지 비적응형 시험은 60~80개의 문항이다. 모든 시험 점수는 EF 어학연수 과정의 레벨을 기준으로 규정되었다. 모든 시험의 절차는 동일하며 학생들이 자택에서 본인의 컴퓨터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시험의 목적이 자격증의 취득 혹은 상위 학교 입학 허가를 위한 것 등이 아니며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학생들이 부정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시험 점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려 할 우려가 없다.

EF EPI에 사용된 응시자 표본

EF EPI 지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의 종합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44개국에 걸쳐 2,368,730명 응시자들의 시험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성비 등 인구 표본에 대한 세밀한 통계자료는 수집되지 않았으며 시험 응시자가 최소 400 명 이상인 국가들만이 이 지수에 포함되었다. 시험당 응시자가 100명 이하인 국가는 총 시험 응시자 수와 관계없이 제외되었다. 이 지수에 나타난 시험 응시군이 반드시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영어를 배우고 싶거나 혹은 자신의 영어 실력을 평가해보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도를 가진 표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게다가 이 시험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거나 온라인 프로그램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제외되었다. 이런 편향 요인들로 인해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소외 계층이 제외됨으로써 전체 평균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나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EF EPI 점수 계산

한 국가의 EF EPI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각 시험 점수는 먼저 전체 문항 수에 대한 정답의 비율로 표준화된다. 이후 각각의 시험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네 가지 시험에 대해 한 국가의 모든 점수의 평균이 산출된다. 각 국가는 그 점수에 근거하여 특정한 능력군에 배속되며 이 능력군이 비슷한 영어 실력 수준을 가진 국가들의 그룹을 알아내고 지역 내 또는 지역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해 준다. 지난 40여년 간의 영어 교육 경험에 기초한 EF의 영어 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능력군을 나누는 기준 점수가 결정되었다. EF 레벨은 케임브리지 대학 ESOL과 공동 리서치를 바탕으로 표준화되었으며 CEFR의 기준을 엄격히 따르고 있다.

EF Education First

1965년에 설립된 EF Education First는 언어교육, 학업여행, 문화교류, 학위과정 전반에 거쳐 1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글로벌 사립 교육기관이다. 언어와 문화, 그리고 지리적 장벽을 허물어간다는 이념 아래 설립된 EF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400여개의 직영학교와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150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세계 최대 온라인 영어학교인 EF 잉글리시타운 또한 EF의 자회사이다. EF는 1,200여개 글로벌 기업 및 기관에서 영어 교육을 제공해왔으며 88 서울올림픽, 2008 베이징 올림픽 및 2014 브라질 월드컵 조직위원회의 공식언어교육서비스 지정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더 자세한 기업개요는 www.ef.co.kr와 www.englishtown.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Media Contact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epi@ef.com 로 이메일을 주시거나 서울 02) 3452 5210로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2011 EF Education First Ltd.
All rights reserved.

참조 문헌

Special thanks to Kate Bell, Eric Feng, Dr. Christopher McCormick, Ming Chen, Ku Chung, and Britt Hult.

Barro, Robert and Jong-Wha Lee.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Adult Population." World Bank, 2000.
http://go.worldbank.org/8BQASOPK40

Canagarajah, A.S. Resisting Linguistic Imperialism in English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Carnoy, M. "Globalization and Educational Reform: what planners need to know," Fundamentals of Educational Planning. Paris: UNESCO, 1999.
http://www.uned-illesbalears.net/esp/desarrollo2.pdf

CIA. "The World Factbook", 2010.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index.html

Crystal, D.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Collier, V.P. "The Effect of Age on Acquisition of a Second Language for School", New Focus, the National Clearinghouse for Bilingual Education, 1988, Number 2.
http://www.thomasandcollier.com/Downloads/1988_Effect-of-Age-on_Acquisition-of_L2-for-School_Collier-02aage.pdf

Council of Europ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Country Statistical Profiles. OECD Stat Extracts, 2009.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SP2009

Curtis, G. E. ed. Russia: A Country Study. Washington: GPO for the Library of Congress, 1996.
http://countrystudies.us/russia/

Eurydice. "Key Data on Teaching Languages at School in Europe". Brussels: Eurydice European Unit, 2008.
http://eacea.ec.europa.eu/education/eurydice/documents/key_data_series/095EN.pdf

Global English Corporation. "Globalization of English 2007 Report", 2007.
http://www.globalenglish.com/m/dl/whitepapers/GlobalizationResearch.pdf

Graddol, D. "English Next". London: British Council, 2006.
http://www.britishcouncil.org/learning-research-english-next.pdf

Graddol, D. "English Next India". London: British Council, 2010.
http://www.britishcouncil.org/learning-english-next-india-2010-book.htm

Ha, P. L. "Toward a Critical Notion of Appropriation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Asian EFL Journal, Volume III, Issue 3, Article 3. 2005.
http://www.asian-efl-journal.com/September_05_plh.php

Hakuta, K., Goto Butler, Y., & Witt, D. "How Long Does It Take English Learners to Attain Proficiency?", University of California Linguistic Minority Research Institute Policy Report, 2000-1.
http://www.stanford.edu/~hakuta/www/research/publications/%282000%29%20-%20HOW%20LONG%20DOES%20IT%20TAKE%20ENGLISH%20LEARNERS%20TO%20ATTAIN%20PR.pdf

Hakuta, K. "A Critical Period for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D. Bailey, J. Bruer, F. Symons & J. Lichtman (eds.), Critical Thinking about Critical Periods. (pp. 193-205). Baltimore: Paul Brookes Publishing Co., 2001.
http://www.stanford.edu/~hakuta/www/research/publications/%282001%29%20-%20A%20CRITICAL%20PERIOD%20FOR%20SECOND%20LANGUAGE%20ACQUISITION.pdf

Hudson, R. A., ed. Brazil: A Country Study. Washington: GPO for the Library of Congress, 1997.
http://countrystudies.us/brazil/

Human Development Index Trends (1980-2007)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http://hdr.undp.org/en/statistics/data/motionchart/

Jenkins, J. The Phonology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Lewis, Paul. Ethnologue: Languages of the World, 16th edition, 2009.
http://www.ethnologue.org

McKay, S. L. Teaching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rethinking goals and approach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Moloney, A. "Colombia training targets poor", Guardian Weekly, July 22, 2005.
http://www.guardian.co.uk/education/2005/jul/22/tefl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The High Cost of Low Educational Performance", OECD, 2010.
http://www.oecd.org/dataoecd/11/28/44417824.pdf

SCImago Journal & Country Rank. "International Science Ranking", SCImago Lab 2009.
http://www.scimagojr.com/countryrank.php

Seidlhofer, B. "A Concept of International English and Related Issues: From 'Real English' to 'Realistic English'?" Strasbourg: Language Policy Division, DG IV – Directorate of School, Out-of-School and Higher Education, Council of Europe, 2003.
http://www.coe.int/t/dg4/linguistic/source/seidlhoferen.pdf

Smith, M. "Educational Reform in Latin America: Facing a Crisis".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February 19, 1999.
http://www.idrc.ca/en/ev-5552-201-1-DO_TOPIC.html

Solsten, E. and Meditz, S. W., ed. Spain: A Country Study. Washington: GPO for the Library of Congress, 1988.
http://countrystudies.us/spain/45.htm

Strebel, Etienne. "Early English helps Swiss children learn French". Swissinfo, Apr 10, 2009.
http://www.swissinfo.ch/eng/Early_English_helps_Swiss_children_learn_French.html?cid=7330574

Svartvik, J. & Leech, G. English: One Tongue, Many Voic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6.

UNESCO "The Education For All by 2015 Global Monitoring Repor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5/001547/154743e.pdf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Yearbook of Immigration Statistics: 2008.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ffice of Immigration Statistics, 2009.
http://www.dhs.gov/xlibrary/assets/statistics/yearbook/2008/ois_yb_2008.pdf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8.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NP.PCAP.CD